미얀마 기도편지

미얀마 4월 기도편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미얀마 내전은 여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지역은 지진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 지역은 여진으로 재난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청소년 사역 잘 하고 왔습니다. 7개 교회에서 80여명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여름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랄레이라 마을에서 22명 아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랄레이라 마을에는 37년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침례를 받은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 모두가 너무 감동이었고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대나무로 지은지 너무 오래 되어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나무가 아닌 나무벽으로 된 예배당 짓기를 전교인들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물가가 너무 오른 상태인데 모든 자재가(시멘트, 지붕) 인도 국경이랑 가까운(산 꼭대기)미얀마 내부에서 공수하기가 더 어려운 지역이라 인도에서 공수해야 해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전화가 안되고 인터넷은 당연히 없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마지막 문둥병자인 19세 남자 형제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에 조금이나마 도움 주고 싶은데 기도해 주십시요.

기도제목
1. 미얀마 내전이 하루 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2. 지진 피해 지역이 잘 복구 되고 재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3. 랄레이라마을 교회 건축 자금이 잘 해결될수 있도록